주·야간보호센터 061)394-0123
신세계요양원
061-395-2580 장성읍 방울샘길 12 (장성읍 영천리 1493-5)

호남신문

호남신문 자매지 국민복지신문 2010년 8월 30일 창간

(대표전화) 062-229-6000 1946년 10월 26일 창간 i-honam.com 제 3502호 (음력 2월 25일)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고흥 우주발사체 단지 '비상'…국가첨단산단으로 개발된다

외나로도 일원 2030년까지 3800억 투입 173만㎡ 규모 조성

생산유발 4조9천억·고용 2만여 명…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고흥이 정부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포함됐다.

전남도는 대한민국 우주발사체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고흥 우주발사체국가산업단지'가 15일 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7면〉

이는 전남도가 고흥에 국내 유일 우주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있는데다, 지난해 12월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가 지정됨에 따라 이와 연계한 기업 유치 공간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고흥 우주발사체국가산업단지'는 고흥 봉래면 외나로도 일원에 2030년까지 3800억원을 들여 173만㎡ 규모로 조성된다.

우주발사체 조립·부품 제조 전·후방 기업과 발사체 연구기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우주발사체 앵커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화되고 4조9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여 명의 고용유발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와 고흥군은 공공·민간의 위성 발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발사체 제조 기술과 기업 육성, 우주산업 기반시설 확장과 기업 입주 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한 국가산단 조성의 필요성과 타당성 논리를 개발해 국토부 평가에 적극 대응한 것이 후보지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전남도가 세계를 선도할 대한민국 우주발사체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국내 항공산업 기반 미흡으로 보류된 '무안 항공국가산단 후보지'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KTX 경유와 연계해 유치 업종을 다양화하는 등 사업 계획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역점 구상 중인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융복합단지', '국제유기농식품 수출플랫폼 구축사업' 등과 함께 국가산단 지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꽃 피우는 홍매화 15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교정에 심어진 홍매화가 꽃을 피우고 있다.

'할아버지는 학살자' 전두환 손자 SNS에 5·18 단체 "환영"

전씨 유족 과오 지적한 사례는 처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손자가 할아버지를 포함한 일가의 행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비판하고 나서자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당사자들이 환영의 뜻을 비쳤다. 〈관련기사 9면〉

15일 전씨의 친손자 A씨의 SNS에 따르면 그는 지난 14일 "할아버지가 학살자라 생각한다.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라고 말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이어 자신의 가족에 대해 "아버지(전재용)와 새어머니는 출처 모를 검은돈을 사용해가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며 "(전재만씨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와이너리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다. 검은 돈의 냄새가 난다"고 지적했다.

전씨 가족 가운데서 과오를 인정하는 발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검은 돈'을 언급, 부정축재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씨 앞으로 책정된 수천억 원대 추징금의 환수 시급성도 재차 떠오른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역사의 죄인은 후손이 그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이 또한 같은 사례"라며 "유족이 직접 부정축재 정황을 언급한 만큼 드러나지 않은 규모의 비밀 자산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추징금 수사가 속도를 내야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홍인화 5·18기록관장은 "늦었지만 손자라도 전두환과 자신 일가의 과오를 인정했다고 판단, 소신있는 발언을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 평가한다"며 "요즘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공정의 가치관이 묻어난 발언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5·18유족들은 지난 43년 동안 전씨 일가가 호의호식하는 모습을 보고 울분을 터트려왔다. 부정축재한 재산을 환수하지 못해온 정부도 원망해왔다"며 "유족이 나서 이같은 정황을 고백하고 비판한 것은 다행스러우나 보다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추가 폭로와 함께 추징금 환수에 협조할 뜻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슬비 기자

'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올해부터 적용된다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과 크리스마스(12월25일)도 올해부터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게 골자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다.

현재 전체 공휴일 15일 중 신정(1월1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 현충일(6월6일), 기독탄신일(12월25일) 등 4일은 대체공휴일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부처님오신날이 5월27일 토요일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인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쉴 수 있게 된다. 기독탄신일은 월요일이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